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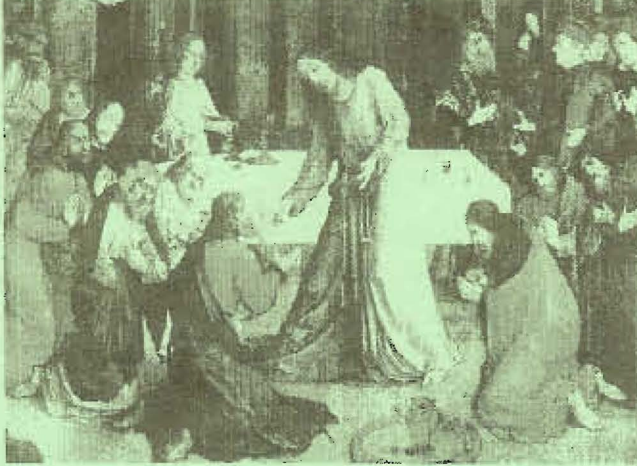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0주일
제31권 38호(가혜) 2011-8-14

[묵상]



예수님! 그 가나안 부인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하십니까?
자신을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도 감사하는,
당신이 흡족할 만한 비굴함 때문인가요?
소중한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느 어머니가 그녀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 어떤 비굴함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인내와 겸손
그러나 저희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영원할거 같던 열정은 욕망이 되고
소원을 성취하고 나면
인내와 겸손은 비굴함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항구함을 보십니다.
목적달성 후에 사라지고 말
욕망과 비굴함이 아니라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더욱 강해질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당신께서 칭찬하신 그 항구한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산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씨니 클라라
주 일 낮 미사	(연)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이덕철 루카, 권순봉 요안나, 엄은설 도로테오, 오진 베드로, 박준구 요한, 강용운 요셉,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김순녀, 이현호 요한, 유철봉 로렌조 & 김부전 아녜스, 편성근 & 김창운과 조상님들, 박문규 (생)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신대철 알베르토, 김호인 벨라멧다, 현정훈 마리아, 이상훈 사무엘, 전시웅 요한 & 정자 마리아, 윤선희 로사 & 신경희 클라라, 남가주남성 제33차 꾸르살로 수강자 & 봉사자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6,1.6-7

화답송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 소 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 소 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13-15.29-3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 음 마태오(Matthew) 15,21-28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당신은 사랑받기...	109	182
봉헌	269	261	266
성체	주님께서는	305	279
파견	227	334	252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은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

생명문제와 그 보호와 증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신앙이 특별한 빛과 힘을 주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진리를 찾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인간 양심 안에서 제기된다. 생명이 신성하고 종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가치는 결코 믿는 이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가치는 모든 인간 존재가 이성의 빛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서 하는 모든 일은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며,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가-잉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의 존중이 모든 시민사회가 서 있는 기둥이라고 선언할 때, 교회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국가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약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우선적인 의무로서 인정하고 옹호하는 국가를 말이다."

생명의 복음은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능동적으로 생명을 옹호한다는 것은 공동선의 증진을 통한 사회의 쇄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생명권을 인정하고 옹호하지 않는다면 공동선의 증진은 불가능하다.

개인들의 다른 모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생명권 위에 성립되며, 생명권에서부터 생겨난다. 사회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화 등과 같은 가치들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인간의 생명이 약하거나 소외된 곳에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평가절하하거나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거나 용인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는 굳건한 토대가 결핍된 사회이다. 오직 생명을 존중함으로써만, 민주주의와 평화 같은 가치있고 필수적인 사회의 선익에 대한 토대와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고 인간의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또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바오로 6세께서 지적하셨듯이, "생명에 대한 모든 범죄는 평화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도덕적 행위를 공격할 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들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인정하고 옹호하는 곳에서, 평화는 생명을 위한 즐겁고 영향력있는 사회 분위기가 될 것이다."

"생명의 백성"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한 백성"의 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인간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선익을 위한 사랑과 연대의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리움을 연에 실어 날려보낼 수 있다면...

그리움을 연에 실어 날려보낼 수 있다면 가을 하늘에 띄어 보내고 싶습니다. 울여름 유별난 장마와 폭우, 무더위에 지친 탓인지 가을 하늘이 더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눈물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벽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연약함이 만들어 내는 액체가 눈물일지 모르지만, 그 힘없는 눈물이 세상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것도 삶입니다. 어쩌면 강함과 기계적인 논리의 우수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눈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흔치 않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귀에게 시달리는 딸을 둔 여인이 필사적인 것에 반해 예수님은 너무나,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야박하게 여인을 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인의 집요함에 예수님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은 이처럼 눈물 흘리는 것밖에, 다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적이란 사실 하느님 마음의 움직임이고, 하느님 마음은 연약하고 절박한 이들을 마주할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고 부와 권력을 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좌절로 향하는 열차 편을 예약해 놓은 것일 수 있고, 그것에 연연함이 결정적 실패와 의미 없는 삶을 향한 급행열차를 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느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인데, 하느님이 머

물 여지를 주지 않으니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함께하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힘 있는 자들의 파티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하고 나약한 분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약해지는 곳은 믿음이 없는 곳이고, 가장 강해지시는 곳은 당신께 믿음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성모승천 기념 사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넷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이다. 주님께서서는 마리아께 무덤의 부패를 겪지않게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토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채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자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 월

◆ 성서 특강 "하느님 구원의 역사"

● 일시 : 오늘 주일(14일) 오후 1시30분 성당

● 강사:강현철 펠릭스 신부(부산가톨릭대 교목처장)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월) 오후 7시30분
(미사후 성모회가 전신자들에게 건강호박죽을 대접합니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지난 주일부터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사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양업회에 이어 오늘은 요셉회 차례입니다. 전체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일 : 요셉회 ▶21일 : 대건회 ▶28일 : 성모회
- ▶9월4일 : 자모회 ▶11일 : 안나회 ▶25일 : 빈첸시오
- ▶10월2일 : 레지오마리아에 ▶10월9일 : 배론청년회

◆ '야외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오늘 주일(14일) 마감

◆ 남가주 제33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3차 남성 꾸르실료에 4명의 수강자와 2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8월25일(목)~28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수강자 : 이남현 막시모, 이인석 비오, 김관기 라파엘, 이명석 크리스토퍼
- 봉사자 : 서성용 베드로, 김성현 유스티노
- 8월 본당 올뜨레아 : 21일(주일) 낮미사후 회의실
- 문의 : 올뜨레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제2기 서예 회원모집

- 연습장소 및 시간 : 매주일 오후 1시15분,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야외14처 기금마련 행사

◆ 대건회 거라지 세일 및 여름보양식 황기 반계탕 판매

- 일시 : 오늘 주일(14일) 낮미사후
- 장소 : 성당 친교장
- 세일품목 : 의류, 신발, 생활용품, 전자제품, 운동용품, 장난감 등
- * 문의 ☎ 대건회장 송호창 요셉(323)899-8758

◆ 성모회 김치 판매

- 김치 : 9월25일(주일)
- * 빈병 모읍니다.
-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310)738-4788

◆ 주일학교 농구대회...농구대 인근 주차를 피해주세요.

백삼위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늘 주일(14일) 학생 미사 후 본당 서쪽에 위치한 농구코트에서 게임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사제관 앞마당 농구대 근처에 주차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4일)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
- 문의 : 주일학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배론 청년회 피정 기금마련 냉동 왕만두 판매

- 일시 : 8월21일(주일) 낮미사후 친교장
- 품목 :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만두와 왕전빵
- 문의 : 배론청년회장 박수민 히메리오 ☎(310)944-4579
- 익명의 교우께서 배론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왕만두와 왕전빵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14일(주일) : 대건회(황기반계탕 \$5)
- 8월21일과 28일 두차례 소공동체가 마련하는 주일 점심 나누기 친교자리가 없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인모	국세찬	권진열	김교복	김기석
	김기정	김대우	김상규	김전제	김영경	김옥보
	김용	김우용	김옥	김원모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종문	김호순	노찬술	노해숙
	민기남	박써니	박음전	박인식	성낙호	송호창
	엄정자	오신재	오일순	이근모	이명자	이상규
	이상석	이상철	이인두	이태욱	이희영	익명
	임연조	정규숙	정동호	정상문	정지숙	주용범
	최미열	최원석	최이원	한연만	황화수	박제이
	합계 : \$5,540					
미사헌금 : \$2,849						
2차헌금 : \$917						

성전헌금	강인모	국세찬	권진열	김교복	김기석	김기정
	김대우	김전제	김옥보	김 용	김우용	김 옥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김종문	김호순	노찬술
	노해숙	민기남	박써니	박인식	성낙호	송호창
	엄정자	이근모	이명자	이상규	이상석	이상철
	이희영	정규숙	정동호	정상문	정지숙	주용범
	최미열	최이원	한연만	박제이콧		
	합계 : \$3,36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전례모임

- 일시 : 8월28일(주일) 오후 1시 성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전례연습이 있으니 해당학생들은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8월21일부터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백삼위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일자 : 9월11일(주일)까지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수업시작 : 9월11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장 ☎(310)713~2669

◆ S.O.E.L. 찬양밴드 단원 모집

- 대상 : 6학년 이상(초보자 가능)
- 파트 : 노래, 각종 악기
- 문의 : 김유한 요한 ☎(310)951-8036
- S.O.E.L(Soul Of Eucharistic Laudation)

남가주 소식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엄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배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욱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하면 \$20입니다.)
- 음식과 식수 : 각자 준비(대회장 근처에서도 매식가능함)
- 주차 : 5층 지정된 장소에만 파킹하세요.
- 카풀 : 대회당일 오전 7시 백삼위성당 주차장
(카풀대상 : 차가 없으신분만!)
- 문의 : 백삼위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제2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미의 밤

- 일시 : 8월27(토) 오후 7시~밤 11시
- 주제 : 나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
- 대상 : 남가주 전 가톨릭 청년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성 골롬반외방선교회)
- 장소 : 성 토마스 성당(412N. Crescent Way, Anaheim)
- 문의 : 각본당 청년회장
또는 김정옥 펠릭스 남가주회장 ☎(714)200-9862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8/6(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석안젤라 8/13(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8/11(목)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8/2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우영희 엘리사벳 720-2876 8/9(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휴회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8/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성현 유스티노 213-458-3356 8/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진열 피데스 516-7472 8/12(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원 마리아 985-2882	야외반모임 우정의 종각빌 공원 8/21(주일) 오전 10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야외 합동 반모임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997-9006 8/12(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8/14(주일) 11시 미사후,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금명영 세실리아 293-4365 8/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휴회
----------	----

2011년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분!”(루카 1,4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에 가득하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어 올려지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늘도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시고,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넷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는 우리 신앙인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교회헌장 62항).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 응답은 성모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느님을 우선시하고, 하느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이 보장된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참 평화와는 거리가 먼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자연자원의 낭비와 파괴가 극성을 부리고, 생명을 존중하기는커녕 생명의 남용을 서슴지 않는 비인간화가 거리낌 없이 성행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불행은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자리에 돈과 재물을 두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맘몬이즘(mammonism)1)을 문제 삼으며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1티모 6,17)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돈을 하느님처럼 숭배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은 한계가 없고 통제되지 않는 탐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황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절대자 하느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



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태 6,24)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탐욕적인 갈망이 상호 배타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재물을 사회의 공익을 위해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돈이 화폐의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가 재물과 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는 정보체계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보다 더 건강하고 신뢰가 굳건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재물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인간 노동의 대가인 돈과 재물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큰 축복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1년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정진석 추기경